

17세기 『재이고(災異考)』의 자연 기록과 그 의미

경석현†

1. 머리말

『재이고(災異考)』¹는 17세기 중반에 작성된 재이 기록 모음집이다. 서문이나 발문은 없고 다른 사료에서도 책제(冊題)가 확인되지 않아 『재이고』가 작성된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재이고』의 존재만이 짧게 언급되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이나 편찬의 의미가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동안 『재이고』는 ‘17세기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 정도로 단순히 파악되었다. “17세기 당시에 천문 관련 재이가 빈번하였고, [그에 관한 기록이] 별도로 작성될 만큼 재이가 두드러졌음은 분명하다”²든지, 혹은 “17세기에도 별의 움직임이나 일식, 월식, 햇무리, 달무리, 흰 무지개 등 재이라고 인식되었던 여러 현상을 관측하여 기록하였고, 이를 그림으로 그려 정리하는 등 천체에 대한 관측은 대단히 세밀했음을 볼 수 있다”³와 같은 평가가 『재이고』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전통 시대의 재이 기록은 단순히 자연(천문) 현상을 보고 적은 것이

† 국립대구과학관 연구원, rudgus20@dnsm.or.kr

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 1313>.

2 李東麟, “許穆의 春秋災異論에 나타난 ‘漢學的’ 경향”, 『韓國史論』 49 (2003), 133쪽.

3 趙允旋, “조선후기 天觀과 災異論의 自然法思想的 접근”, 『仁荷史學』 10 (2003), 503쪽.

아니다. 재이 기록은 전통 시대의 재이관(災異觀)에 입각하여 생산되었고, 객관적인 자연 상태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의해 좌우되었던 측면이 크다.⁴ 그렇기 때문에 재이 기록을 통해서도 당대의 객관적인 자연 상태가 아닌 전통 시대의 재이관과 자연 인식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이고』를 ‘17세기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 정도로 이해해서는 『재이고』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간과할 수가 없고, 그러한 재이 기록의 이면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비로소 『재이고』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과학사 연구에서 재이 기록과 재이론의 중요성은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그에 관한 본격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⁵ 특히 재이 기록의 경우는 분량도 방대할뿐더러 적절한 연구 방법이 모색되지 않아 기존 재이론 연구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측면이 크다.⁶ 이 점에서 『재이고』 연구는 전통

4 朴星來, “[論壇 I]李泰鎮교수 ‘소빙기(1500—1750)의 천체 현상적 원인—『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록 분석”], 『歷史學報』 149 (1996), 242—244쪽; 박권수, “『승정원일기』 속의 천변재이 기록”, 『史學研究』 100 (2010), 89—94쪽; 경석현, “『朝鮮王朝實錄』 災異 기록의 재인식—16세기 災異論의 정치·사상적 기능을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60 (2013), 67—74쪽; 경석현, “17세기(인조—현종) 연대기 자료의 災異 기록 재검토—『東宮日記』를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68 (2014), 135—138쪽.

5 조선 시기 재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고 權延雄, “朝鮮前期 經筵의 災異論”, 『歷史教育論集』 13·14 (1990), 597—616쪽; 張學根, “成宗의 救荒政策과 民意收斂—求言進書制를 中心으로—”,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편, 『(龍巖車文燮教授華甲紀念論叢)朝鮮時代史研究』 (新書院, 1989), 477—506쪽; 張學根, “燕山君의 災異論에 대한 認識變化—君權·言權 論爭을 中心으로—”, 『慶南史學』 7 (1995), 5—40쪽; 李碩主, “朝鮮初期의 天人合一論과 災異論”, 『震檀學報』 81 (1996), 89—106쪽; 具萬玉, “朝鮮後期 尊君卑臣論의 災異觀—許穆(1595—1682)의 春秋觀과 災異論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會 편, 『韓國實學의 새로운 摸索』 (경인문화사, 2001), 323—373쪽; 具萬玉, “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 『韓國思想史學』 19집 (2002), 185—228쪽; 李煌, “許穆의 災異觀—그의 祭儀의 對應을 中心으로—”, 『宗教學研究』 14 (서울대학교 종교학연구소, 2002), 153—168쪽; 남지대, “제이와 태종의 왕권”, 『人文科學研究』 13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47—75쪽; 이동인, “許穆의 春秋災異論”, 127—183쪽; 조운선, “조선후기 天觀과 災異論”, 497—526쪽; 김우형, “『經筵日記』에 나타난 율곡의 災異觀”, 『율곡사상연구』 18 (2009), 57—83쪽; 임혜련, “明宗 전반기 재이론과 수렴청정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53 (2010), 107—134쪽; 이상호,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成宗期 災異觀의 특징”, 『국학연구』 21 (2012), 357—387쪽; 홍승태, “『宋史』 “五行志”의 “災異” 기록과 그 의미”, 『한국사학사학보』 28 (2013), 209—232쪽.

6 이런 점에서 한국사 관련 사료에 산재해 있는 방대한 양의 재이 기록을 수집·발췌해 이것이 갖는 科學思想史의 의미를 정리한 박성래의 연구는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朴星來, 『한국과학사상사』 (책과함께, 2012)).

시대의 재이관과 이것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재이 기록 사이의 상관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재이고』가 과연 어떠한 자료인지 그리고 17세기의 지식인이 『재이고』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것이다. 먼저 『재이고』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록된 재이 기록의 양과 내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재이 기록의 이면에 담긴 당대 지식인의 재이관과 자연 인식을 알아볼 것이다. 『재이고』를 언제, 누가, 왜 작성했는지, 이것을 작성해서 얻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생각해 볼 것이다.

2. 『재이고』 내용 분석

『재이고』에는 인조 2년(1624) 2월부터 효종 6년(1655) 9월까지 약 30년 간 모두 841일 치의 재이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인조 대에는 2년과 5년, 10년과 11년, 그리고 14-27년의 기록만 있어서 실제로는 24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이고』의 재이 기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관상감 재이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재이 기록’이다. 먼저 관상감 재이 기록은 관상감의 측후단자(測候單子)를 옮긴 것이다. 주지하듯 관상감에서는 매일 재이를 관측하고 관측 내용을 단자로 작성해 보고했다. 『재이고』의 관상감 재이 기록은 이러한 관상감의 측후단자를 옮긴 것으로 언제 어떤 재이가 있었는지 짚막하게 적혀 있다. 예컨대 아래의 사료와 같은 형식이다.

병자년(인조 14년, 1636) 3월 초3일 밤 1경 달이 묘성(昴星)을 범(犯)했다.⁷

『재이고』에 수록된 관상감 재이 기록은 모두 582건이 있다(부록 1). 이 가운데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현상은 142건의 ‘월(오)성범식입(月五星犯食入)’⁸이다. 『

7 『災異考』 丙子年(인조 14년, 1636), 3月 初3日, “夜一更, 月犯昴星.”

8 동아시아 역법에서五星은 水星[辰星], 金星[太白星], 火星[熒惑星], 木星[歲星], 土星[填星]을 말한다. 그래서 月五星犯食入이라 하면 달과五星의 犯·食·入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대기 자료의 재이 기록에는 달과五星의 變異 뿐 아니라 3垣 28宿의 恒星과의 變異도 상당하다. 여기에서는 달과五星 및 恒星과의 變異를 모두 포함한다.

서운관지(書雲觀志)』에 따르면 ‘범’이란 달과 별의 빛이 서로 한 치 이내에서 미치는 것을 말하고, ‘식’이란 별이 달 가운데로 들어가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입’이란 별이 달 가운데로 들어갔으나 형체는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⁹

구체적으로 보면 달이 오성을 범했다는 기록이 76건이고, 식했다는 기록이 2건이며, 입했다는 기록이 64건이다. 범의 대상은 현원성(軒輗星)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묘성이 11건, 심성(心星)이 9건이다. 식은 토성(土星)과 목성(木星)이 각각 1건씩이며, 입은 동정성(東井星)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태미원(太微垣)이 14건, 남두성(南斗星)이 6건이다.

관상감 재이 기록 중 월오성범식입 다음으로 많은 것은 141건의 태백주현(太白晝見)이다. 태백주현은 금성이 낮에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대부분은 ‘몇시에 태백성이 어디에서 보였다’의 형태로 적혀 있다.¹⁰ 이 밖에도 햇무리[60건]와 달무리[32건], 그리고 전광(電光)[56건]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한편 관상감 재이 기록 중에는 도형이 그려져 있는 기록도 35건이 있다(부록 2). 백홍관일(白虹貫日)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월식이 12건, 일식이 7건, 백홍관월(白虹貫月)이 2건이다. 백홍관일과 일·월식은 반드시 그림을 그려 보고해야 했는데,¹¹ 『재이고』의 재이 도형은 이러한 관측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방 재이 기록은 각 도에서 보고한 재이 장계(狀啓)를 압축하여 실은 것이다. 각 도에서는 매월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이를 정리해서 보고했는데, 『재이고』의 지방 재이 기록은 이러한 각 도의 재이 장계를 요약하여 수록한 것이다. 예컨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수록된 인조 24년(1646) 5월 9일(갑인) 평안감사의 재이 장계를 보면, “맹산에서는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서리가 눈처럼 내려 보리와 밀이 말라 손상되었다고 보고했고, 태천에서는 4월 28일 미시(未時)에 소낙비와 우박이 섞여 퍼붓듯 내렸는데 [우박이] 큰 것은 비둘기 알과 같았고 우박의 재해가 더욱 심하였다고 보고했으며, 영변에서는 4월 28일 맑은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뜻밖에 크게 일어났고 소낙비가 퍼붓듯 내렸으며 큰 우박이 연이어 떨어졌는데 [크기가] 큰 것은 오리 알만 하였고 작은 것은 계란만 하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양(平壤) 또한 이와 같았다고 합니다.”¹²라고 되어 있는데, 『재이고』에는 이것이 축약되어 다음

9 成周憲 編,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주,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82쪽.

10 예컨대 『災異考』, 丁卯年(인조 5년, 1627) 2月 11日, “未時, 太白見於巳地.”

11 成周憲, 『서운관지』, 80-81쪽.

과 같이 실렸다.

병술년(인조 24년, 1646) 5월 초9일 평안감사가 장계했다. 맹산에서는 지난 4월 23일에 서리가 눈처럼 내렸다고 보고했고, 태천에서는 4월 28일 미시에 소낙비와 우박이 섞여 퍼붓듯 내렸는데 [우박이] 큰 것은 비둘기 알만 했고 작은 것은 새 알만 했다고 보고했다.¹³

이처럼 『재이고』의 지방 재이 기록은 각 도의 재이 장계를 짧게 요약해서 옮긴 것이다. 『재이고』의 지방 재이 기록 중에는 우박이 72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풍재(風災)가 52건이고, 서리가 37건, 지진이 31건, 뇌동·전광이 14건이다. 계절별로 보면 봄이 52건, 여름이 118건, 가을이 72건, 겨울이 34건이다. 참고로 17세기 인조-현종 대 『조선왕조실록』의 지방 재이 기록은 모두 717건인데 이 가운데 699건이 기상 이변이나 자연 재해에 관한 것이다. 그런 만큼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다.¹⁴ 『재이고』의 지방 재이 기록은 17세기 실록 속 그것의 경향과 다르지 않다.

12 『承政院日記』 第94冊, 仁祖 24年(1646) 5月 9日(甲寅), “平安監司狀啓, 孟山呈去四月二十三兩日, 霜降如雪, 兩麥枯損事, 泰川呈以四月二十八日未時, 驟雨交雹下注, 大如鳩卵, 雹災尤甚事, 寧邊呈以四月二十八日良中, 雷霆霹靂, 不意大作, 驟雨如注, 大雹繼出, 大如鴨卵, 小如鷄卵, 平壤亦爲如此云云.”

13 『災異考』, 丙戌年(인조 24년, 1646) 5月 初9日, “平監狀, 猛山呈去四月二十三日霜降如雪, 泰川呈四月二十八日未時驟雨交雹下注大如鳩卵小如鳥卵.”

14 표 1. 인조-현종 대 『조선왕조실록』의 지방 재이 기록

구 분	우 박	수 재	천 동 번 개 벼 락	서 리	비 바 람	눈	한 재	기 타	봄	여 름	가 을	겨 울	합 계
건 수	214	169	97	91	82	67	54	18	77	301	267	72	717

* <표 1>은 ① 인조-현종 대 『조선왕조실록』 중 8도에서 보고한 재이 기록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② 현종 대의 것은 『현종개수실록』을 참고하였다. ③ 수재·풍재와 비·바람의 구분은 농작물이나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삼았다. ④ 봄은 (음력으로) 1-3월, 여름은 4-6월, 가을은 7-9월, 겨울은 10-12월로 파악하였다. ⑤ <표 1>에서 제시한 현상 외에도 지진(23건), 해일(12건), 안개(7건)에 관한 기록이 있다. ⑥ 기타의 18건 중에는 성변 4건과 함께 임답이 수탑으로 변했다는 기록,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기록, 연못에 거품이 올랐다는 기록, 넘어졌던 나무가 다시 일어섰다는 기록 등이 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재이고』에는 재이 외에 인사(人事)와 관련된 기록도 16건이 수록되어 있다(표 2). 이것은 『재이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며, 무엇보다도 그 대부분이 17세기 전반의 국가적 변란(變亂)에 관한 것이라 주목된다. 『재이고』가 단순한 재이 기록 모음집이 아니라는 점은 이렇게 변란과 관련된 인사 기록이 함께 적혀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사실 『재이고』의 첫 기사는 재이 기록이 아닌 인사 기록이다. 국왕, 즉 인조가 ‘이괄(李适)의 난(亂)’으로 남천(南遷)했다가 다시 환도했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정묘호란에 관한 기사가 6건 정도 있는데 모두 정묘호란 당시 인조와 왕실 인물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다. 이 밖에도 인조 17년(1639) 4월 24일 ‘장릉(章陵)[원종릉(元宗陵)]의 실화(失火),¹⁵ 5월 15일 ‘영릉(英陵) 정자각(丁字閣)의 실화’,¹⁶ 그리고 인조 22년(1644) 2월 12일 ‘심기원(沈器遠, 1587-1644)의 역모(逆謀)’ 등이 주목된다.

표 2. 『재이고』 인사 기록

구분		내용		비고
인조	2년(1624)	2월 8일	因适亂南遷二十二日還都	『재이고』 첫 기사
		6월 10일	元子 會講後 宣醢	
		7월 12일	天啓崩駕	
	5년(1627)	1월 17일	奴賊犯義州邊報入來	丁卯胡亂
		1월 21일	慈殿內殿西出江華	
		1월 24일	世子南出全州	
		1월 26일	自上離京	
		4월 10일	自上還都	
		5월 3일	三殿還都	
		8월 11일	興慶園遷葬	
		12월 3일	昭顯嘉禮	
	17년(1639)	4월 24일	章陵失火	왕릉 失火
		5월 15일	英陵丁字閣失火惟一狂僧打鐘人定	
	20년(1642)	3월 9일	日本國送御書	
	22년(1644)	2월 12일	沈器遠謀叛	沈器遠 모반사건
효종	원년(1650)	3월 11일	淸國求婚	

15 『仁祖實錄』 卷38, 17년(1639) 3월 30日(丁亥), “章陵失火, 大王陵上西北隅幾半被燒.”

16 『仁祖實錄』 卷38, 17년(1639) 4월 29日(丙辰), “禮曹啓曰, 卽見英陵參奉馳報, 本月二十

인사 기록과 함께 고려해 봐야 할 것이 바로 『재이고』의 인조 대 연대 배치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조 대의 재이 기록은 원년이 아닌 2년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그 첫 기사는 다름 아닌 ‘이괄의 난’과 관련된 인사 기록이다. 이것은 『재이고』를 작성하는 애초부터 인사 문제를 염두에 두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인조 대에 어떤 재이가 언제 있었는가를 ‘순수한’ 의도로 정리하고자 했다면 굳이 인조 원년의 재이를 생략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남천했다가 환도했다는 기사를 첫 머리에 실지도 않았을 것이다. 즉 인조 대의 재이를, 국가적 변란을 염두에 두고 정리했기 때문에 『재이고』의 첫 기사를 인조 2년의 이괄의 난 관련 내용으로 작성했던 것이다.

인조 대 재이 기록이 2년에서 5년으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조 대의 기록은 인조 2년에서 시작해 3년과 4년을 건너뛰고 바로 5년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연대 배치는 인조 5년의 정묘호란(丁卯胡亂)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인조 5년 1월 17일의 “노적(奴賊)이 의주의 변경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왔다”라든지, 1월 21일의 “자전(慈殿)과 내전(內殿)이 강화(江華)로 서출(西出)했다”, 1월 24일의 “세자(世子)가 전주(全州)로 남출(南出)했다”, 1월 26일의 “국왕이 서울을 떠났다”, 4월 10일의 “국왕이 환도했다”, 그리고 5월 3일의 “삼전(三殿)이 환도했다”와 같은 정묘호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사를 재이와 함께 수록함으로써 변란의 참혹함과 재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조 대 기록을 작성하면서 인조 2년에서 바로 5년으로 넘어간 것은 정묘호란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며, 동시에 『재이고』를 작성하면서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정리하려고 했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인조 대의 기록은 인조 5년에서 바로 10년과 11년으로 이어진다. 인조 10년과 11년에는 인사 기록이 없어 왜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이고』에서 재이와 함께 국가적 변란에 주목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이유를 인조 10년의 인목대비 상(喪)¹⁷이나 11년의 정묘화약(丁卯和約)의 파기¹⁸ 정도로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조 11년에서 바로 14년으로 이어지는 것은 병자호란(丙子胡亂)을 염두에 둔 연대 배치가 아닐까 한다. 요컨대 『재이고』의 인조 대 연대 배치가 인조 2년과 5년, 10년과 11년, 14-27

八日鷄鳴時，丁字閣失火燒盡云。”

17 『仁祖實錄』 卷26, 10年(1632) 6月 28日(甲午)

18 金容欽, 『朝鮮後期政治史研究 I』 (해안, 2006), 212-213쪽.

년으로 이뤄진 것은 국가적 변란을 염두에 두고 재이를 정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관상감 재이 기록을 살펴보면 그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현상은 142건의 월오성범식입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사실 17세기 관상감이 위치해 있던 서울에서 가장 많이 관측·보고된 재이 현상은 햇무리였다. 인조-현종 대의 『승정원일기』와 『동궁일기(東宮日記)』를 검토해 보면 햇무리가 가장 높은 빈도로 확인되고 이어서 달무리와 유성, 안개, 태백주현 순이다.¹⁹ 햇무리와 달무리, 유성과 안개, 그리고 태백주현은 ‘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평상시에도 자주 관측되는 천문·기상 현상이다. 아마 관상감에서도 이 현상들을 가장 많이 관측·보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 『재이고』가 단순히 당시에 많았던 재이 현상을 모은 것이라면 웅당 이 현상들—햇무리, 달무리, 유성, 안개, 태백주현 등—이 다량으로 수록됐어야 했다. 그런데 『재이고』의 현황은 그렇지가 않다. 월오성범식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햇무리나 달무리, 그리고 유성에서 관한 기록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적다.

표 4. 『재이고』와 『승정원일기』의 재이 기록 비교

구분	월오성범식입	태백주현	햇무리	달무리	유성
『재이고』	142	141	60	32	8
『승정원일기』	135	486	1,833	922	851

* 『재이고』의 24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함

특히 『재이고』의 24년에 해당하는 『승정원일기』를 보면 월오성범식입이 135건²⁰으로 『재이고』가 7건이 더 많다. 태백주현이나 햇무리, 달무리, 유성에

19 표 3. 인조-현종 대 『동궁일기』와 『승정원일기』 관상감 재이 기록 비교

구분	日量	月量	流星	霧	太白晝見	합계
『동궁일기』	3,175	1,499	1,186	1,160	1,005	6,462
『승정원일기』	2,640	1,319	944	940	947	5,603

* 경석현, “17세기(인조-현종) 연대기 자료의 災異 기록 재검토”, 166쪽.

²⁰ 犯·食·入이 각각 71건·3건·61건이다. 한편 『동궁일기』는 『재이고』와 겹치는 기간이 짧아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어렵다. 인조 대의 『동궁일기』는 『소현동궁일기』와 『효종동궁일기』가 있는데 각각 인조 3-14년과 인조 25-27년 동안의 기록이다(金南基, “동궁일기를 통해 본 17세기 세자의 교육—『소현동궁일기』부터 『숙종춘방일기』까지를 중심으로—”,

관한 기록은 대거 생략하면서도 월오성범식입은 그 이상으로 수록했던 것이다.²¹ 여기에는 분명 『재이고』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월오성범식입이 기록된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인조 24년(1646) 2월 12일(기축) 『승정원일기』의 재이 기록에서는 ‘월범’ 현상 외에도 유성과 달무리, 안개 등이 확인된다.²² 반면 같은 날의 『재이고』를 보면 ‘월범’ 현상만이 기록되어 있다.²³ 즉 재이 현상 가운데 ‘월범’ 현상만을 수록하고 나머지 현상들—유성, 달무리, 안개 등—은 모두 생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재이 현상의 취사선택 또한 다분히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재이고』의 편찬자는 의도적으로 월오성범식입 기록을 다량으로 수록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재이고』의 작성자가 월오성범식입 기록을 다량으로 수록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상감의 천문학 교과서인 『천문유초(天文類抄)』에서는 월오성범식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달이 세성(歲星)에 입하면²⁴ 나라의 재상(宰相)이 축출되고 (㉡)[달이 세성을] 범하면 병란(兵亂)이 일어나며 백성이 유랑한다. (㉢)[달이] 태백성을 범하거나 입하면 인군(人君)이 죽고 또 병란이 일어난다. (㉤)[달이] 형혹성에 입하면 난신(亂臣)이 죽고 서로 죽이는 자가 있게 된다. 일설(一說)에는 여주(女主)가 직접 정치를 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진다고 한다. (㉥)[달이 형혹성을] 범하면 대장(大將)이 죽고 모반하는 신하가 있으며 백성이 굶주린다. (㉦)[달이] 진성(辰星)에 입하면 적신(賊臣)이 군주를 죽이고자 하고 3년을 넘지 않아 반

『漢字漢文教育』 22 (2009), 336쪽). 그런데 『재이고』의 인조 대는 2년과 5년, 10년과 11년, 그리고 14-27년에만 기록이 있다.

²¹ 『재이고』와 『승정원일기』의 월(오)성범식입 기록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98건이 서로 일치하였다. 날짜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은 88건이고 하루 차이가 나지만 내용상 서로 같다고 보아도 무방한 기록이 10건이다. 예컨대 『災異考』, 甲申年(인조 22년, 1644) 1월 13일의 “夜一更, 月犯軒轅右角星”은 『承政院日記』에서는 다음날인 14일에 확인된다. 하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록된 내용으로 봤을 때 서로 일치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²² 『承政院日記』 第93冊, 仁祖 24年(1646), 2月 12日(己丑), “夜一更, 月犯軒轅星. 流星出星, 星下入東方天際, 狀如拳, 尾長二三尺許, 色赤. 五更, 月暈兩珥, 有霧氣.”

²³ 『災異考』, 丙戌年(인조 24년, 1646), 2月 12日, “夜一更, 月犯軒轅第一星.”

²⁴ 원문에는 “세성[목성]이 달에 입하면[歲星入月]”이라고 되어 있으나 지구와 천체들 간의 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달이 목성에 입하면[月入歲星]”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박성래, 『한국과학사상사』, 87쪽).

드시 내란[內惡]이 있을 것이다. (㉟)[달이 진성(辰星)을] 범하면 천하에 홍수가 든다. (㉠)[달이] 진성(填星)을 범하거나 입하면 신하가 군주를 시해하고 [달이 진성(填星)과] 합(合)하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 (㉡)[달이] 혜성에 입하거나 범하면 병란이 12년 동안 있고 큰 기근이 든다.²⁵

요컨대 월오성범식입에 대한 『천문유초』의 해석은 내란과 병란, 그리고 기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천문유초』는 이순지(李純之, 1406-1465)가 천문학 관련 여러 문헌을 종합하여 지은 저술이다.²⁶ 상권의 별자리에 대한 설명은 『보천가(步天歌)』를 많이 따랐고,²⁷ 하권의 ‘천지(天地)’, ‘일월(日月)’, ‘성신(星辰)’, ‘오성(五星)’은 중국 정사의 “천문지(天文志)”를 주로 참고했다.²⁸ 월오성범식입은 하권의 ‘일월’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술된 내용으로 봐서는 『진서(晉書)』 “천문지”와 『송사(宋史)』 “천문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의 사료 ㉑, ㉒, ㉓, ㉔은 『진서』 “천문지”에서 확인된다. ㉑은 혜제(惠帝) 태안(太安) 2년(303) 11월 경진의 ‘세성입월중(歲星入月中)’의 점사(占辭)에서,²⁹ 그리고 ㉒은 위(魏) 명제(明帝) 청룡(靑龍) 2년(234) 10월 무인의 ‘월범태백(月犯太白)’의 점사에서 확인된다.³⁰ 또 ㉓은 효무(孝武) 태원(太元) 12년(387) 2월 무인의 ‘형혹입월(熒惑入月)’의 점사에서,³¹ 그리고 ㉔은 효무 태원 13년(388) 12월 무자의 ‘진성입월(辰星入月)’의 점사에서 확인된다.³²

²⁵ 『天文類抄』(奎中 1907), 下, 3㉑, “歲星入月國有逐相, 犯兵起民流. 太白犯入人君死又爲兵. 熒惑入有亂臣死, 若有相戮者, 一曰女親爲政天下亂, 犯大將死, 有叛臣民飢. 辰星入賊臣欲殺主, 不出三年必有內惡, 犯天下水. 填星犯入臣弑主, 合國饑. 彗入或犯兵期十二年大饑.”
²⁶ 전상운, “조선 초기의 과학기술 서적”,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617쪽.

²⁷ Sang-Hyeon Ahn,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ochonka* and *Chonmun yucho*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 26:4 (2009), pp. 628-630.

²⁸ 예컨대 『천문유초』에 수록된 日月蝕에 대한 설명은 『宋史』 “天文志”의 내용을 빌린 것이다[具萬玉, “朝鮮後期 日月蝕論의 變化”, 197쪽].

²⁹ 『晉書』 卷12, 志 2, “天文” 中, 91쪽(영인본—『(正史全文 標校讀本 二十五史) 晉書』(鼎文書局, 1985)의 쪽수. 이하 25史는 모두 같음), “惠帝太安二年十一月庚辰, 歲星入月中. 占曰, 國有逐相.”

³⁰ 『晉書』 卷12, 志 2, “天文” 中, 91쪽, “魏明帝 … 靑龍二年十月 … 戊寅, 月犯太白. 占曰, 人君死, 又爲兵.”

³¹ 『晉書』 卷12, 志 2, “天文” 中, 92쪽, “孝武太元十二年二月戊寅, 熒惑入月. 占曰, 有亂臣死, 若有相戮者. 一曰, 女親爲政, 天下亂.”

³² 『晉書』 卷12, 志 2, “天文” 中, 92쪽, “孝武太元 … 十三年十二月戊子, 辰星入月, 在危.

그에 비해 ㉞, ㉟, ㊱, ㊲, ㊳은 『송사』 “천문지”에서 옮긴 것이다. 『송사』 “천문지”는 월오성범식입을 일괄하면서 “달이 세성을 범하면 병란이 있고 기근이들며 백성이 유랑한다(㉞).³³ [달이] 형혹성을 범하면 대장이 죽고 모반하는 신하가 있으며 백성이 굶주린다(㉟). [달이] 전성을 범하면 인신(人臣)이³⁴ 군주를 시해하고 합하면 나라에 기근이 든다(㊱). [달이] 진성을 범하면 천하에 홍수가 들고(㊲), [달이] 혜성에 입하거나 범하면 병란이 12년 동안 있고 큰 기근이 든다(㊳)”라고 하였다.³⁵ 아마도 이순지는 『송사』 “천문지”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진서』 “천문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월오성범식입에 대한 내용을 서술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진서』와 『송사』의 “천문지”를 바탕으로 하는 월오성범식입 해석은 17세기에 도 통용됐다. 인조 21년(1643) 10월 12일(임신) 밤 1경 달이 목성을 범하자 관상감에서는 『진서』 “천문지”를 인용해 ‘월범목성(月犯木星) 현상’을 풀이했다. 즉 “달이 목성을 범하면 그 분야의 나라는 난이 있고 기근이 든다. 『진서』 “천문지”에 따르면 그 분야의 나라는 기근이 들고 인민이 유망한다. 황제(黃帝)의 점사에는 형옥(刑獄)이 번잡해지고 도적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변방에서 장수가 일어난다 하고 또 일설에는 그 분야의 군주가 죽고 또 백성이 질병에 걸린다 하며 또 일설에는 재상에게 흉(凶)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었다.³⁷

그리고 허목(許穆, 1595-1682)의 『춘추재이(春秋災異)』에서도 유사한 해석이 확인된다.³⁸ 일부 글자의 순서가 다르고 짧게 요약되긴 했으나³⁹ 전체적인 구도나 내용면에서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허목이 『천문유초』를 직접

占曰, 賊臣欲殺主, 不出三年, 必有內惡.”

33 『宋史』 “天文志”에는 ‘兵飢民流’라고 되어 있는데 『天文類抄』에는 ‘兵起民流’라고 되어 있다.

34 『宋史』 “天文志”에는 ‘人臣弑主’라고 되어 있는데 『天文類抄』에는 ‘入臣弑主’라고 되어 있다.

35 『宋史』 卷52, 志 5, “天文” 5, 293쪽, “歲星犯之, 兵飢民流. 熒惑犯之, 大將死, 有叛臣民飢. 填星犯之, 人臣弑主, 合國飢. … 辰星犯之, 天下水. … 彗星入或犯之, 兵期十二年, 大飢.”

36 月五星犯食入을 災異로서 기록하고 이것의 점성적 의미를 밝힌 것은 『진서』 “천문지” 단계가 처음이다. “천문지”에 月五星犯食入을 기록하면서 전체 천문 현상에서 해와 달의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문규, “『晉書』 “天文志”의 천문 사례—해와 달에 관한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3권 1호 (2001), 46쪽.

37 『承政院日記』 第86冊, 仁祖 21年(1643) 10月 12日(壬申), “夜一更, 月犯木星. … 觀象監, 月犯歲星其宿, 國亂飢, 晉志曰, 其分歲飢人流, 黃帝占曰, 刑獄煩, 多盜賊, 一曰有邊將, 一曰其分主死, 又爲民疾, 一曰相有凶.”

38 『記言』 卷31, 敘述 5, “天地日月星辰三”, 17-(민족문화추진회 편, 韓國文集叢刊, 98책, 432쪽).

39 표 5. 『천문유초』와 허목의 『춘추재이』 월(오)성범식입 설명 비교

인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이고』가 편찬될 당시에도 월오성범식입의 의미는 여전히 ‘내란과 병란, 그리고 기근’이었던 것이다.

『재이고』는 인조반정 이후의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주목한 기록물이다. 특히 많은 재이 기록 중에서도 유독 월오성범식입 현상을 다량으로 수록했는데 이것은 ‘내란과 병란, 기근’이라는 월오성범식입의 점성적 의미 때문이다.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주목하면서 ‘내란과 병란, 기근’의 의미를 갖는 월오성범식입 현상을 다량으로 수록했던 것이다. 『재이고』는 단순히 언제 어떠한 재이가 있었는가를 정리한 재이 기록 모음집이 아니라 17세기 조선이 직면한 국가적 위기—내란·병란·기근—를 당대의 재이를 통해 보여주는 문헌인 것이다.

3. 『재이고』의 정치사상사적 의미

이상에서 『재이고』의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재이고』를 언제, 누가, 왜 작성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모두(冒頭)에서 언급했듯이 『재이고』가 작성된 맥락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몇 가지의 단서들로 추정해 볼 뿐이다.

먼저 작성 시점을 살펴보자. 『재이고』의 가장 마지막 기사는 효종 6년 9월 27일의 것이다. 이로 보아 『재이고』가 작성된 시점은 효종 6년 10월 초로 추정된다. 『재이고』의 표지를 보면 “재이고(災異考)”라는 표제 밑에 ‘전(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이 한 권으로 온전한 책이라는 뜻이므로 효종 6년 9월 27일의 마지막 기사 뒤에 결락된 내용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효종 6년 9월의 마지막 재이 단자까지를 확인하고 기록하려면 9월 이후에 편찬해야 했을 것이다.

『천문유초』(15세기, 이순지)	『춘추재이』(17세기, 허목)
歲星入月國有逐相	歲星入月有逐相
犯兵起民流	犯兵起民流
太白犯入人君死又爲兵	太白犯入國君死又有兵
熒惑入有亂臣死若有相戮者 一曰女親爲政天下亂	熒惑入亂臣相戮 一曰女親爲政天下亂
犯大將死有叛臣民飢	犯有大將死臣叛民飢
辰星入賊臣欲殺主不出三年必有內惡	辰星入賊臣謀君不出三年必有內惡
犯天下水	犯天下水
填星犯入臣弑主合國饑	填星犯入有臣弑君合飢
彗入或犯兵期十二年大饑	彗入或犯兵期十二年大飢

또 10월을 한참 더 지나서 작성했다면 10월 이후의 재이 기록을 굳이 수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10월 초에 9월까지의 기록을 확인하고 나서 『재이고』를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보건대 『재이고』가 작성된 시점은 효종 6년 10월 초가 아닐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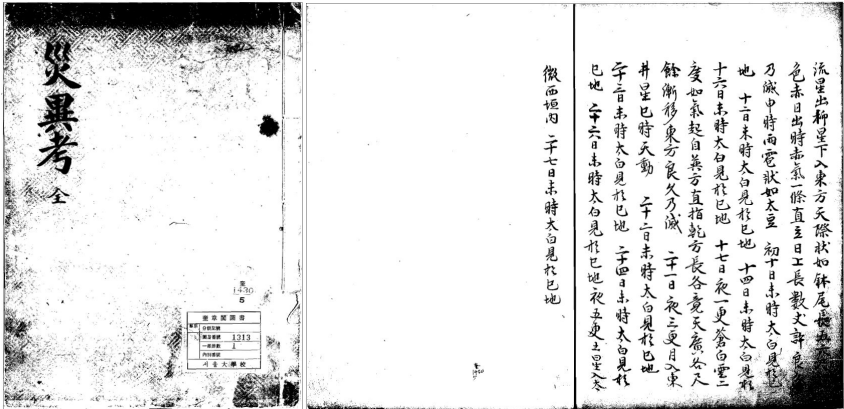


그림 1. 『재이고』의 표지(좌) 및 마지막 기사(우)

다음으로 누가 작성했을 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 『재이고』는 관상감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조 대의 『승정원일기』가 참고된다. 영조 23년(1747) 2월 16일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와 우승지(右承旨) 김상직(金尙迪, 1708-1750)이 ‘백홍관월’에 대해 나눈 대화가 나온다.

김상직 : 제가 관상감의 소보(小報)를 보니 백홍관월의 재변(災變)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 조 : (놀라며 말하길) 전에 ‘관일(貫日)’의 재변은 들어봤어도 ‘관월(貫月)’의 재변은 들어보질 못했다. 어째서 즉시 보고하지 않았나?

김상직 : 서운관[관상감]의 단자는 제조(提調)의 집이 멀어서 아직 오지 않았고 소보가 먼저 이른 것입니다.

영 조 : 주서(注書)를 밖으로 보내서 관상초결(觀象抄訣), 관상감재이단자(觀象監災異單子), 천변책(天變冊)을 가지고 오라.⁴⁰

40 『承政院日記』第1013冊, 英祖 23年(1747) 2月 16日(丙子), “尙迪曰, 俄見觀象監小報, 有白虹貫月之變矣. 上色動下教曰, 前聞貫日之變, 未聞貫月之變矣. 何不卽告耶. 尙迪曰, 雲觀單子, 以提調之家遠未及來, 而小報先至矣. 上曰, 注書出外, 觀象抄訣・觀象監災異單子

이 대화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마지막에 영조가 언급한 『관상초결』과 『천변책』이다. 『관상초결』과 『천변책』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지만, 책체로 보아 『재이교』와 마찬가지로 재이를 별도로 모아 놓은 기록물이 아닐까 한다. 또 재이가 별도로 기록된 책일 테니 영조가 보자고도 했을 것이다. 이것은 재이단자 외에도 관상감에서 작성한 재이 관련 편찬물이 더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이교』도 이러한 성격의 편찬물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재이교』는 특정 개인에 의해 작성된 자료일 수가 있다. 17세기 이후 개인에 의해 작성된 재이 관련 편찬물은 적지가 않다. 먼저 인조 11년(1633) 10월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인조의 재이구언에 대한 응지상소(應旨上疏)를 올리면서 『십육괘배진(十六卦排陳)』을 함께 지어 바쳤다.⁴¹ 『십육괘배진』은 『주역(周易)』의 64괘(卦) 가운데 진괘(震卦)가 들어 있는 16괘를 뽑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아래에 있는 정진(貞震) 8괘와 위에 있는 회진(悔震) 8괘로 나누고, 정진에는 무망(无妄)·수(隨)·서함(噬嗑)·진(震)·익(益)·둔(屯)·이(頤)·복(復) 괘를, 회진에는 대장(大壯)·귀매(歸妹)·풍(豐)·진(震)·항(恒)·해(解)·소과(小過)·예(豫) 괘를 두어 각각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다.⁴² 장현광이 특별히 진괘를 뽑은 이유는 당시 재이구언의 소재가 천동·번개였기 때문이다.⁴³ 미재책을 개진하면서 『주역』에 주목한 까닭은 장현광이 워낙에 역학(易學)에 입각해 자연세계를 이해하려 했던 탓으로 보인다.⁴⁴

현종 5년 12월 25일(임오) 부사직(副司直) 김익렴(金益廉, 1622-?)은 『역대요성록(歷代妖星錄)』을 지었다.⁴⁵ 현종 5년 10월 9일(정묘)부터 이듬해 1월 1일(무자)까지 82일 동안 혜성이 출현하자⁴⁶ 김익렴은 역대로 혜성이 출현했을

及天變冊持來”

⁴¹ 『旅軒集』 卷3, 疏, “應旨進言疏”, 12ㄱ-17ㄱ(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60책, 61-64쪽); “十六卦排陳”, 17ㄱ-25ㄴ(60책, 64-68쪽).

⁴² 『旅軒集』 卷3, 疏, “應旨進言疏”, 17ㄱ(60책, 64쪽), “臣就周易六十四卦中特取其震卦, 或居下爲貞, 或居上爲悔者, 十有六卦, 別爲一冊上之.”

⁴³ 『旅軒集』 卷3, 疏, “應旨進言疏”, 12ㄱ(60책, 64쪽), “乃於本歲七月中旬之七, 雷震夜作, 變酷于殿內, 故自上震驚, 遂下本旨也.”

⁴⁴ 전용훈, “朝鮮中期 儒學者의 天體와 宇宙에 대한 이해—旅軒 張顯光(1554—1637)의 『易學圖說』과 『宇宙說』”, 『한국과학사학회지』 18권 2호 (1996), 133-145쪽; 문중앙, “16·17세기 조선 우주론의 상수학적 성격—서경덕(1489-1546)과 장현광(1554-1637)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4호 (1999), 111-117쪽.

⁴⁵ 『顯宗實錄』 卷9, 5年 12月 25日(壬午), “副司直金益廉因彗星之變, 哀合歷代以來星變之類, 別爲冊子, 名曰歷代妖星錄, 投疏以進其冊.”

때의 가언(嘉言)과 지론(至論)을 채집하고 간간이 자신의 생각을 붙여 책을 지었다.⁴⁷

현종 9년(1668) 2월 23일(임진)에는 예조좌랑(禮曹佐郎) 이옥(李沃, 1641-1698)이 재이상소와 함께 『역대수성편람(歷代修省便覽)』을 지었다.⁴⁸ 이보다 17일 전인 2월 6일(을해) 현종은 백홍관일을 맞아 정전(正殿)을 피하면서 재이구언을 하교했는데,⁴⁹ 이옥은 이에 대한 응지소로 『역대수성편람(歷代修省便覽)』을 작성했던 것이다. 그는 『역대수성편람』에서 노 장공(莊公) 11년(기원전 683)부터 송(宋) 효종(孝宗) 7년(1168)까지의 재이를 정리한 후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붙였다. 그리고 『역대수성편람』을 옆에 두고 틈나는 대로 보고 고열(攷閱)하여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하늘에 응하길 실질적인 도(道)로써 하면 작은 도움이라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저술의 목적을 밝혔다.⁵⁰

『재이고』도 이러한 17세기의 재이 편찬의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것들은 대체로 재이구언에 대한 응지소로서의 성격을 갖는데, 『재이고』 또한 같은 취지에서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장현광이나 김익렴, 이옥 등의 저작과 차이가 있다면 이것들은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 경서(經書)나 중국의 정사(正史)를 바탕으로 하는 데 비해 『재이고』는 특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도 않고 또 경서나 중국의 정사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섣뽕 동류(同類)라고 하기에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나 17세기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재이 편찬의 흐름은 분명 주목해 볼만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셋째, 『재이고』는 국왕의 명에 의해 작성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16세기 중종 대의 사례가 참고된다. 중종 12년(1517) 3월 29일과 30일 평안도

46 이때의 혜성은 국립기상연구소 황사연구과 기상역사팀, 『관상감이 기록한 17세기 밤하늘』(기상청, 2013), 77-259쪽; 朴成桓, “朝鮮 顯宗時代의 彗星觀測”, 『東方學志』 31 (1982), 67-103쪽; 朴成桓, “朝鮮 顯宗 5年(1664) 大彗星의 軌道”, 『한국과학사학회지』 4권 1호 (1982), 52-64쪽; 안상현 외, “조선 현종 5년(1665) 대혜성의 궤도 요소 결정”, 『우주과학회지』 23권 1호 (2006), 55-70쪽 참고

47 『顯宗實錄』 卷9, 5年 12月 25日(壬午), “謹採歷代彗出時嘉言至論, 間附所懷, 合爲一冊.”

48 『顯宗實錄』 卷14, 9年(1668) 2月 23日(壬辰), “禮曹佐郎李沃因災異上疏, 論修省之道, 仍進二編書, 名之曰歷代修省便覽, 上優批嘉納之.”; 『博泉集』 別集, 卷1, “進修省便覽疏”, 1 ㄱ-3 ㄱ(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속, 44책, 340-341쪽); “修省便覽”, 1 ㄱ-20 ㄱ(속, 44책, 342-351쪽).

49 『顯宗實錄』 卷14, 9年 2月 6日(乙亥), “上以災異, 避正殿. 下敎政院曰, …”

50 『博泉集』 別集, 卷1, “進修省便覽疏”, 2 ㄴ-3 ㄱ(속 44책, 340-341쪽), “將此冊子, 置諸座側, 燕閑之暇, 特加觀覽, 則庶使攷閱, 恒寓戒惕, 其於應天以實之道, 不能無小補云.”

에 눈과 서리가 내려 보리가 얼어 죽었다는 보고가 있었다.⁵¹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일에는 경상도에서 알에서 갓 병아리가 갈비뼈에 다리 2개를 더 달고 태어났다는 장계가 올라왔다. 또 서울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눈이 내렸다는 보고도 있었다.⁵² 그러자 중종은 재이를 그치게 할 수성(修省)의 도리(道理)를 들고 싶다는 대신들을 인견(引見)했다. 이 자리에서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1462-1538)은, 재이는 모두 음이 왕성하고 양이 미약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중종에게 반성하고 유념할 것을 요구했다.⁵³ 그리고 다음날 시강관 이자(李耜, 1480-1533)는 근래 재이가 겹쳐 나오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며 삼가 수성하여 천견(天譴)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말만 하는 것보다는 글로 써 두는 것이 좋으면서 반정 이후로 일어난 재이는 모두 적어 옆에 두고 마음에서 잊지 말라고도 했다. 그러자 중종은 이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반정(反正) 이후의 재이는 모두 빠짐없이 서계(書啓)하라고 지시했다.⁵⁴ 재이를 통해 반정 이후의 국정을 되돌아보고 이를 정치 수성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이어서 명종 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명종 9년(1554) 5월 27일 밤 혜성이 북두칠성 괴성(魁星) 앞에 출현했다는 보고가 있자 명종은 홍문관과 관상감에 일러 옛일을 상고하여 보고하라고 했다.⁵⁵ 역대로 어떠한 혜성이 있었는지 살펴본 뒤 이를 쇠신과 수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였다.⁵⁶ 이처럼 16세기 중종 대와 명종 대에는 재이가 출현하면 관련된 재이를 별도로 정리하고,

51 『中宗實錄』卷27, 12年(1517) 3月 29日(甲辰), “平安道江界黑川德川雲山雨雪深尺餘, 泉水成冰, 義州下霜, 禾苗枯”; 同月 30日(乙巳), “隕霜, 平安道朔州隕霜.”

52 『中宗實錄』卷27, 12年 4月 1日(丙午), “慶尙道觀察使金安國狀啓曰, 永川郡人家, 有雞生雛, 右脅別生兩脚云. … 雨雪…黃海道海州延安殷栗江陰安岳信川, 雨雪雨雹, 江原道淮陽金城通川杆城平康金化歙谷, 雨雪, 平安道朔州, 雨雪川凍, 全羅道珍山錦山長水, 雨雪, 龍潭沃溝靈巖, 雨雹, 慶尙道安陰咸陽, 雨雪.”

53 『中宗實錄』卷27, 12年 4月 2日(丁未), “命召領議政鄭光弼左議政金應箕右議政申用漑, 引見曰, 災異迭出, 三月晦日, 有霜降之災, 慶尙道亦有四足鷄之異, 予甚驚懼. 無乃上有闕政, 下有民怨而然乎. 侍從皆言 朝廷紀綱不立, 何以則可乎. 願聞弼災修省之道, 召卿等耳. 光弼曰, 今之霜降, 至爲失節, 且自春, 日月光輝, 常不鮮明. 如此之變, 皆由於陰盛陽微, 當講求已往將來之事, 而省念焉.”

54 『中宗實錄』卷27, 12年 4月 3日(戊申), “御朝講. … 耜又曰, 近來災變疊出, 當純陽用事之月, 萬物敷榮之時, 霜未可降, 而隕霜殺草, 此正兢惕側修, 以答天譴之時. 臣意以爲, 言之於口, 不若筆之書. 自上卽位以後, 凡變怪之事, 書諸座隅, 左右顧眄, 常常不弛于念, 可也. … 傳曰, 反正後, 凡災異之事, 其無遺書啓.”

55 『明宗實錄』卷16, 9年(1554) 5月 27日(丙寅).

56 『明宗實錄』卷16, 9年 5月 29日(戊辰).

군주는 이를 공구수성(恐懼修省)의 계기로 삼곤 했다.

『재이고』의 작성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다. 즉 『재이고』가 국왕인 효종의 명에 의해 작성된 자료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효종은 인조반정 이후의 재이를 주요 국가적 변란과 함께 살펴보고 공구수성의 계기로 삼고자 『재이고』의 작성을 지시했던 것이 된다. 또 한편으로는 종종 대정광필과 이자가 그러했듯이 군주의 공구수성을 요구하는 관인·유자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재이고』와 같은 재이 모음집의 편찬 지시는 필요했을 것이라 본다.

요컨대 『재이고』의 작성 주체는 다양하게 상정해 볼 수 있다. 관상감에서 작성한 재이 기록 모음집일 수도 있고, 또 특정 개인이 작성한 자료일 수도 있으며, 아니면 국왕인 효종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자료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고 여기에서 상정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주체에 의해 작성됐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이고』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과연 『재이고』를 작성한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앞에서 살펴본 작성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 작성의 이유 또한 구체화시켜 논의하기 어렵다. 누가 작성했느냐에 따라 그 배경과 이유는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살펴보는 것은 당대에 재이를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보편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주자학적 자연관이 전개된 조선에서는 재이론도 또한 이의 연장에서 논의되었다.⁵⁷ 예컨대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은 응지상소로 올린 “일강십목소(一綱十目疏)”에서 군주(=중종)의 성학을 닦는 노력이 부족해 재이가 발생한 것이라 했고, 이이(李珥, 1536-1584)는 마찬가지로 응지상소로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군주(=선조)가 도학정치(道學政治)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을 세우지 않아 재이가 일어나는 것이라 하면서 이를 실

57 조선 초기 성종 대는 동중서 이래의 전통적 재이관과 사림파의 주자학적 재이관이 공존했던 시기였다[이상호,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成宗期 災異觀의 특징”, 377-381쪽]. 15세기 후반 주자학적 자연관의 전개에 대해서는 具萬玉, “15세기 후반 理學的 宇宙論의 擡頭—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天觀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7집 (1998), 80-93쪽; 具萬玉, “조선 전기 朱子學의 自然觀의 形成과 전개—‘理法天觀’의 自然學的 의미를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23집 (2004), 107-117쪽 참고.

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궁리(窮理)’·‘거경(居敬)’·‘역행(力行)’을 통한 본성(本性)의 회복을 강조했다.⁵⁸

『춘추』의 재이에 대한 이해 또한 이학적(理學的) 차원에서 이뤄졌다. 예컨대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춘추』에 재이는 반드시 쓰고 의심 가는 것은 뺀다면 모두 성인이 후세를 경계(警戒)하려는 것이고 성세(聖世)에 부합됨과 어긋남이 모두 『춘추』에 있다고 하였다.⁵⁹ 권벌(權穰, 1478-1548)은 『춘추』에 일식을 반드시 기록한 것은 군주를 경계하려는 것이니 천상(天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⁶⁰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은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재이를 쓴 것은 후인(後人)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면서 주자의 말을 빌려 옛날의 성왕은 재이를 만나면 두려워하며 덕을 닦고 일을 바르게 해 재이를 상서로 바꿨다고 했다.⁶¹

강석기(姜碩期, 1580-1643)는 공자가 『춘추』를 짓고 특별히 재이를 적은 이유는 사응(事應)을 드러내 보이려는 데에 있지 않고 진실로 군주로 하여금 삼가 천계(天戒)에 답하게 하려는 데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⁶²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에 재이를 갖추어 썼다면 역사를 상고해 보면 역대로 조정이 망할 때에 반드시 재이가 있었다고 했다.⁶³ 그리고 허목은 “춘추재이”의 서문에서 공자가 『춘추』에 재이를 쓴 까닭은 군주로 하여금 천계(天戒)를 경계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에 재이를 기록한 것이나 하늘이 재이를 내린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었다.⁶⁴ 홍여하(洪汝河, 1621-1678)는 역사(歷史)에 ‘봉천(奉

58 경석현, “『朝鮮王朝實錄』 災異 기록의 재인식”, 63-65쪽. 이이의 災異觀에 대해서는 김우형, “『經筵日記』에 나타난 율곡의 災異觀”, 68-74쪽 참고.

59 『梅月堂集』 卷4, 詩, “讀春秋詩”, 32ㄴ-33ㄱ(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3책, 162-163쪽), “災異必書疑則闕, … 此皆聖人警後世, … 知聖罪聖在此書.”

60 『冲齋集』 卷2, 雜著, “春秋胡傳簡義”, 1ㄴ(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9책, 355쪽), “日有食之, 春秋必書, 以戒人君不可忽天象也.”

61 『高峯集』, “論思錄” 卷上, 80ㄴ(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40책, 180쪽), “四月二十九日, … 孔子作春秋, 書災異以戒後人, 朱子曰, 古之聖王, 遇災而懼, 修德正事, 故變災爲祥.”

62 『月塘集』 卷2, 疏筭, “憲府因災異陳戒筭”, 19ㄴ-20ㄱ(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86책, 315쪽), “昔者孔子之修春秋, 特書災異而不著事應者, 實欲人君無所不謹, 以答天戒耳.”

63 『老峯集』 卷2, 疏筭, “因天災陳戒疏”, 3ㄱ(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29책, 20쪽), “孔子著經, 備書災異, 考之諸史, 歷朝將亡, 必有變異, 斑斑具載.”

64 『記言』 卷62, 敍述 5, “春秋災異序”, 1ㄱ-ㄴ(98책, 424쪽), “故春秋, 凡有災必書, 所以戒人君, 不可忽天之戒也. 天道之降災, 聖人之特書, 其教一也. 周典宗伯屬官, 祿掌十輝之法, 以觀妖祥,

天)의 도(道)를 쓴다는 대의(大義)에서 보면 주자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재이를 쓴 것이나 공자가 『춘추』에 재이를 쓴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⁶⁵

앞에서 검토한 장현광의 『십육괘배진』이나 김익렴의 『역대요성록』, 이옥의 『역대수성편람』도 사실은 군주에게 공구수성 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들이다. 예컨대 장현광은, 인주(人主)는 도(道)를 주재하고 대위(大位)에 기거하므로 반드시 먼저 수성을 해야 아랫사람이 분발하고 진작한다면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날마다 벼락 소리가 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 『십육괘배진』을 작성한 진의를 밝혔고,⁶⁶ 김익렴이나 이옥 또한 현종에게 열람하면서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지니라는 의미에서 해당 저작을 편찬했다.⁶⁷

이처럼 ‘재이’가 갖는 의미는 일차적으로 군주의 공구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재이를 관측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은 군주로 하여금 재이를 정치·도덕적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으라는 뜻에서 수행되었다. 관념상 재이 발생의 원인은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의적 책무 또한 군주가 져야 했던 것이다.

『재이고』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효종이 『재이고』의 편찬을 지시했던 아니면 관상감에서 혹은 특정한 개인이 작성해 효종에게 바쳤건, 『재이고』가 작성된 의미는 과거의 재이를 통한 효종의 정치·도덕적 반성과 성찰에 있을 것이다. 특히 인조반정 이후의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정리함에 따라 군주로서의 책무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편 『재이고』의 작성 직후일 것으로 보이는 효종 7년(1656) 1월 26일(을사)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 민정중은 효종을 인견한 자리에서 재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辨吉凶，亦畏天戒也。列書春秋災異，亦推本十輝之法，間附往古妖孽之徵，凡九十六章。苟時君因此警戒寅畏，思所以感天之道，則有補於治道，豈其微哉”

⁶⁵ 『木齋集』 卷10, 雜著, “司天考論(出彙纂麗史天文志)”, 101-(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124책, 517쪽), “然朱子述綱目，於天變，輒謹書之，亦春秋之意，夫史，所以奉天道而作也。”

⁶⁶ 『仁祖實錄』 卷28, 仁祖 11年(1633) 10月 19日(戊寅), “特人主主其道，而居大位，必須躬先修省然後，群下莫不爲之奮發振作耳。在今日如不有奮發振作之心者，雖日聽殷雷之聲，亦何益哉。”

⁶⁷ 『歷代妖星錄』(奎 9783), 序, “倘於燕閑之暇，時垂聖覽，則或不無遇災修省之一助。伏願聖明俯諒寸忱，而特恕狂僭焉”; 『博泉集』 別集, 卷1, “進修省便覽疎”(주 50).

재변이 일어나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마는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있지 않았습시다. … 성상께서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실제에 힘써 두려워 삼가는 자세로 덕을 닦은 뒤에라야 위로는 하늘의 마음에 합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⁶⁸

민정중의 발언은 주자학적 재이론에 입각해 있는 다소 교조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이 발생의 원인을 군주의 일심(一心) 문제로 본 것⁶⁹이나 군주의 ‘측신수덕(側身修德)’을 통해 재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 등에서 그러하다. 민정중의 재이관과 『재이고』 사이에 어떠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17세기 중반 재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이러했다는 것은 『재이고』가 작성되었던 정치사상적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즉 민정중의 발언처럼 재이를 맞은 군주는 “정성을 다하고 실제에 힘써 두려워 삼가는 자세로 덕을 닦아야” 했다. 이것이 군주와 관인·유자가 조정에서 재이를 논의했던 까닭이고 또 『재이고』를 작성케 한 근본적인 동인(動因)이지 않았을까 한다.

4. 맺음말

『재이고』에는 인조 2년(1624) 2월부터 효종 6년(1655) 9월까지 약 30년 간 모두 841일치의 재이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인조 대는 2년과 5년, 10년과 11년, 그리고 14-27년에만 기록이 있어서 실제로는 24년 동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이고』의 재이 기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관상감 재이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재이 기록’이다. 관상감 재이 기록은 관상감의 측후단자를 옮긴 것으로 모두 582건이 있다. 수록 빈도가 가장 높은 현상은 142건의 ‘월오성범식입’이다. 지방 재이 기록은 각 도에서 보고한 재이 장계를 압축하여 실은 것이다. 지방 재이 기록은 대부분이 자연재해나 기상이

68 『孝宗實錄』 卷16, 7年(1656) 1月 26日(乙巳), “鼎重曰, 災異之作, 何代無之, 而未有如今日之甚. … 聖上必須盡誠務實, 側身修德, 然後可以上合天心, 下副民望矣.”

69 『孝宗實錄』 卷16, 7年 1月 26日(乙巳), “弘文館 校理閔鼎重修撰李慶徽. 上筭曰, … 甚至旱蝗癘疫, 災異變怪, 年仍月生, 交臻沓降. 不審殿下, 亦嘗思所以致此之由耶. 無乃萬幾之施設雖講, 而一心之根本未正, 內外相悖, 首末相戾, 紛紜叢勝, 徒勞無成而然耶.”

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재이고』에는 이러한 재이 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사와 관련된 기록도 16건이 있다. 대부분은 17세기 전반의 국가적 변란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재이고』의 첫 번째 기사로 이괄의 난에 관한 기사가 수록됐고, 또 인조 5년의 정묘호란 관련 기사도 다수다. 장릉과 영릉의 실화 및 심기원의 역모 사건 관련 기사도 주목된다. 『재이고』의 인조 대 연대 배치도 고민해 볼 문제이다. 이것은 인사 관련 기사의 수록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때 재이 기록을 17세기 전반의 주요한 국가적 변란과 함께 수록하면서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이고』의 관상감 재이 기록 중 가장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이는 월오성범식입 현상은 의도적인 편집에 의해 다량으로 수록된 것이다. 『재이고』의 작성자가 월오성범식입을 다량으로 수록한 이유는 이것의 점성적 의미 때문이다. 월오성범식입은 조선 전기 이래로 ‘내란과 병란, 기근’이라는 점성적 의미를 지녔다. 『재이고』에서는 인조반정 이후의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주목했기 때문에 ‘내란과 병란, 기근’의 의미를 갖는 월오성범식입 현상을 다량으로 수록했던 것이다.

『재이고』가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몇 가지의 단서들로 추정해 볼 뿐이다. 『재이고』의 가장 마지막 기사는 효종 6년 9월 27일의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재이고』가 작성된 시점은 효종 6년 10월 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재이고』의 작성 주체는 다양하게 상정해 볼 수가 있다. 관상감에서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특정 개인이 작성을 했을 수도 있다. 혹은 효종의 지시에 따라 작성됐을 수도 있다. 끝으로 『재이고』 작성의 의미는 군주의 공구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관념상 재이 발생의 원인은 군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의적 책무 또한 군주가 져야 했다. 그래서 재이가 발생하면 군주는 으레 이것을 정치적·도덕적인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재이고』가 작성된 것도 같은 까닭에서일 것이다. 『재이고』에 적힌 인조반정 이후의 재이를 국가적 변란과 함께 검토함으로써 효종은 국왕으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절감했을 것이다.

『재이고』는 단순히 17세기의 자연 현상을 모아 둔 기록이 아니다. 재이의 수집과 작성, 의미 부여에 이르기까지 『재이고』에는 17세기의 역사성이 투영돼 있다. 『재이고』를 통해서는 ‘사소한’ 자연 현상에까지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인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17세기 지식인의 자연 인식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설령 도의적 차원에서일지라도, 재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군주의 면모도 볼 수가 있었다. 수없이 많은 재해가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 전통 시대의 재이 사상이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한다.

(투고: 2014년 10월 29일, 심사 및 게재 확정: 2014년 1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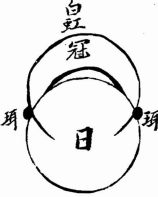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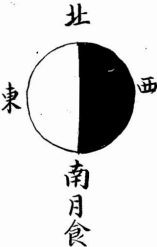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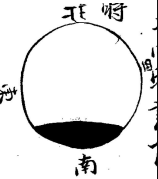
부록 1. 『재이고』 재이 기록 현황

구분	재위	서기	재이기록		인사기록(건)	전체(일)
			관상감(건)	지방(건)		
인조	2년(甲子)	1624	25	0	3	27
	5년(丁卯)	1627	35	3	8	42
	10년(壬申)	1632	22	9	0	31
	11년(癸酉)	1633	32	11	0	41
	14년(丙子)	1636	22	17	0	38
	15년(丁丑)	1637	17	11	0	27
	16년(戊寅)	1638	19	14	0	30
	17년(己卯)	1639	21	6	2	25
	18년(庚辰)	1640	16	5	0	20
	19년(辛巳)	1641	19	11	0	28
	20년(壬午)	1642	11	12	1	23
	21년(癸未)	1643	18	13	0	31
	22년(甲申)	1644	57	11	1	64
	23년(乙酉)	1645	19	1	0	20
	24년(丙戌)	1645	20	10	0	29
	25년(丁亥)	1646	4	26	0	30
	26년(戊子)	1647	17	15	0	32
	27/즉위년(己丑)	1648	10(6/4)	6(2/4)	0	16(8/8)
효종	원년(庚寅)	1649	8	9	1	17
	2년(辛卯)	1650	7	11	0	18
	3년(壬辰)	1651	22	23	0	44
	4년(癸巳)	1652	45	22	0	67
	5년(甲午)	1653	71	14	0	82
	6년(乙未)	1654	45	17	0	59
합계		24년	582	277	16	841

부록 2. 『재이고』 재이 도형(圖形)

인조 5년 1월 17일(일혼관일)	인조 5년 1월 28일(백홍관일)	인조 5년 12월 14일(월식)	인조 10년 3월 1일(백홍관일)	인조 10년 3월 2일(백홍관일)
인조 10년 3월 16일(월식)	인조 14년 3월 12일(백홍관일)	인조 14년 7월 1일(일식)	인조 14년 7월 16일(월식)	인조 15년 11월 16일(월식)
인조 15년 12월 1일(일식)	인조 16년 5월 15일(월식)	인조 16년 12월 5일(백홍관일)	인조 17년 1월 11일(백홍관일)	인조 17년 1월 21일(백홍관일)

인조 17년 5월 15일(월식)	인조 17년 11월 16일(월식)	인조 19년 1월 16일(백홍관일)	인조 19년 1월 22일(백홍관일)	인조 19년 3월 16일(월식)
인조 19년 10월 1일(일식)	인조 20년 윤11월 30일(백홍관일)	인조 21년 1월 22일(백홍관일)	인조 21년 2월 1일(일식)	인조 23년 윤6월 16일(월식)
인조 24년 3월 7일(백홍관일)	인조 24년 6월 16일(월식)	인조 26년 5월 1일(일식)	인조 27년 1월 17일(백홍관일)	효종 1년 10월 1일(일식)
인조 24년 3월 7일(백홍관일)	인조 24년 6월 16일(월식)	인조 26년 5월 1일(일식)	인조 27년 1월 17일(백홍관일)	효종 1년 10월 1일(일식)

효종 3년 8월 16일(월식)	효종 4년 2월 7일(백홍관일)	효종 4년 2월 26일(백홍관일)	효종 4년 윤7월 15일(월식)	효종 6년 7월 1일(일식)
 南食甚圖形				

Portent Records in *Jaigo* and Its Meaning in Seventeenth-century Korea

KYUNG Seokhyeon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Abstract. *Jaigo* 災異考 includes portent records for 841 days, from the second month, 1624 to the ninth month, 1655. The records a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wo types: portent records from Gwansanggam 觀象監 and those from local government offices. While the movements of the moon and the stars appeared most frequently among Gwansanggam portent records, natural disasters and abnormal weather received the highest attention among the local portent records. In addition to the natural phenomena, *Jaigo* also includes 16 entries about human affairs. They are particularly noteworthy because most of these records are related to the national crises in the seventeenth century. For example, the first article in *Jaigo* is about Yi Gwal's 李适 Rebellion. We can also find many entries relating to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27. The arrangement of years in King Injo 仁祖 period is also notable, because this reveals that *Jaigo* was not simply a record of natural phenomena but that of portents that were in association with human affairs.

Due to the intentional editing of the records about the movement of the moon and the stars, the quantity of these records increased. The reason why the author of *Jaigo* emphasized them was its astrological meaning, signifying rebellions, wars, and famines.

Although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ompilation of *Jaigo* are not clear, there are some plausible guesses. The entry of the ninth month, 27th day, 1655 is the last record in *Jaigo*. From this, we can surmise that *Jaigo* was compiled in the early tenth month, that year. As for the compilers of *Jaigo*, there are several possibilities. It might be compiled by Gwansanggam or by individual literati. It is also possible that King Hyojong 孝宗 could have ordered to compile *Jaigo*. Lastly, *Jaigo* might be compiled in order to urge the king's moral reflection. It is because kings were considered to be responsible for the portents.

Keywords. *Jaigo* 災異考, portent, portent records, king's moral reflec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